‘강진 어린이 실종’ 원점부터 재수사

전남경찰청 전담팀 구성…통학로·CCTV 등 철저 조사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 피살사건이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전남경찰도 관내 어린이 장기 실종사건〈본보 4일·17일자 7면〉에 대한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실종 시점이 대부분 7~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경찰의 재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시되고 있다.

강진경찰은 17일 “지난 2000년과 2001년, 1년 사이로 발생한 김성주(당시 6세)·김하은(당시 7세)양의 실종 사건을 원점부터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강력반을 중심으로 한 실종 아동 전담팀을 구성, 김양 등의 통학로였던 중앙초등학교~남포리 집 2.4㎞ 구간 내 상가와 주민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재탐문 조사를 벌이고, 남포리와 목리·평동리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당시 이 두 어린이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실종 아동들의 이동 경로도 재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김양 실종 당시 강진 관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에 촬영된 통과차량도 재판독하는 등 사건의 단서를 잡는데 전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밖에 실종지와 집·학교 주변· 인근 야산·공터·폐가, 건물 등을 재수색하는 한편 전국에 전단지 재배포·전국의 아동 보호시설 방문 조사 등을 펼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강진 주요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차량이 일정 속도를 넘을 경우 판독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또 실종 당시 대대적으로 벌였던 수색작업에서도 사건을 풀 수 있는 단서 하나 발견하지 못했던 경찰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재수색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실종사건의 경우 경찰의 치밀한 초동수사와 실종자 관련 정보의 통합시스템 구축, 실종전담 수사팀 구성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안양 초등학생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숨진 이혜진양 집에서 불과 13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고, 지난해 3월 제주 서귀포에서 실종된 뒤 40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양지승(9)양을 살해한 범인도 이웃에 사는 송모(49)씨였던 만큼 경찰의 면식범에 대한 수사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실종아동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인원이 고작 1~2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수사보다는 관리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실종전담 수사팀 구성도 시급한 실정이다.

강진경찰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십여 건에 이르는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였으나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실종된 두 어린이의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련 제보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주양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오후 2시께 강진 동초등학교 후문 주변에서 실종됐으며, 김하은양은 2001년 6월1일 오후 1시30분께 하교 후 집 근처인 강진 S여고 입구 건널목 주변에서 사라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진=박진표기자 lucky@

17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광주권 대학 졸업앨범 비리 수사 브리핑에서 경찰이 증거품으로 제출된 졸업앨범을 들어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양 어린이 실종·암매장 사건 이모저모

혈흔 찾아내고 알리바이 깨지자 시인

■범인 자백 어떻게 받았나

이혜진(11)·우예슬(9)양 납치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정모(39)씨가 검거 15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정씨가 혜진양을 살해해 토막낸 뒤 암매장한 사실을 자백했고 예슬양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경찰 수사 과정을 종합하면 정씨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두 어린이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깨면서 그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두 어린이가 실종된 지난해 성탄절 직후부터 다각도의 수사망을 펴면서 렌터카가 범행에 이용됐을 가능성에 주목, 안양지역 렌터카 회사를 상대로 실종 당일 차량 대여자 파악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한 렌터카 회사로부터 정씨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9시50분에 뉴EF쏘나타 승용차를 하루 동안 빌린 뒤 이튿날 돌려주기로 한 시간보다 6시간여 앞서 반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즉시 차량을 정밀 감식해 트렁크에서 혈흔을 찾아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면서 정씨를 포함해 성탄절 이후 그 차량을 사용한 대여자 1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

정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것은 혜진양의 시신이 발견되고 닷새 뒤인 지난 16일. 국과수로부터 렌터카 트렁크에서 채취한 혈흔이 실종된 두 어린이의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

경찰은 곧바로 검거에 나섰고 이날 밤 충남 보령의 어머니 집에 은신해 있던 정씨를 붙잡아 수사본부로 압송한 뒤 밤샘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씨는 두 어린이 실종 당일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17일 오전 11시가 넘어서까지도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씨가 내세운 알리바이는 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의심한 경찰은 이를 무너뜨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범행을 시인받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하늘나라선 맘껏 노래 부르렴”

■이혜진양 눈물의 영결식

“내 친구 혜진아. 하늘나라에서라도 맘껏 노래 부르길…”

실종된지 70여일만에 암매장된 주검으로 돌아온 이혜진양의 영결식이 17일 오전 생전에 친구들과 뛰놀았던 모교인 경기도 안양시 명학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전교생 9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운동장에서 열린 영결식은 그동안 혜진이를 찾기 위해 누구보다 동분서주했던 이윤형 교장의 추모사로 시작했다. 이 교장은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던 혜진이가 이제 우리 곁을 영영 떠나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다”며 “어린이들에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대표로 나선 혜진이의 단짝 친구 조미주(11)양은 “노래를 좋아해 가수가 꿈이었던 혜진아. 부디 하늘나라에서라도 맘껏 노래부르며 행복하게 지내”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작업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며칠째 못 깎은 듯 수염이 자란 모습으로 참석한 혜진이 아버지는 혜진이 동생인 둘째 딸의 손을 꼭 잡은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이 양의 시신은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된 뒤 안양시립 청계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졸업앨범 제작 대가 6천만원 받아

대학 총학회장 등 16명 적발

대학 총학생회 부회장 출신 사진업자와 광주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졸업 앨범 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일부 총학생회 간부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사진업자를 유흥업소로 불러내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17일 전 광주 J대 총학생회 부회장이었던 사진업자 강모(36)씨와 졸업앨범 계약 체결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광주 H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모(27)씨 등 학생회장 8명과 학생회 간부 등 모두 16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6년 4월께 이씨가 총학생회장으로 있는 광주 H대의 졸업앨범 제작 계약을 맺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천330만원을 주고 받는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광주 H대, K대, N대, B대 등 4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2년여 동안 6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와 이씨 등은 대학 총학생회장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뒤, 앨범 제작과 관련된 금품 거래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씨와 이씨 등은 졸업 앨범 한 권당 6만5천원에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원가(2만4천~2만5천원)를 뺀 나머지 금액을 놓고 30~35%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씨 등 학생회장들은 사진업자 강씨를 먼저 찾아가 계약체결을 제의했으며 총학생회 조직이 새로 구성될 때마다 강씨를 식당과 유흥업소로 불러내 식비 등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와 이씨 등의 통장 계좌추적을 통해 밝혀진 돈이 현금수수와 향응제공을 빼고도 6천만원인 점으로 미뤄 이 보다 많은 금액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광주권 다른 대학에서도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SOS 메시지’에 납치 오인 소동

쌍나팔

○…20대 여성의 휴대전화 ‘SOS 문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부녀자 납치사건으로 보고 휴대전화 발신자를 찾기 위해 광주 일대를 수색하는 등 한때 긴장.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고모(여·22)씨는 지난 16일 밤 9시께 자신의 휴대전화에 친구 오모(여·21)씨가 보낸 ‘위급상황.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찍히자 경찰에 오씨가 납치됐다며 신고했다는 것.

○…경찰은 이후 광주 일대를 돌며 수사를 벌인 끝에 오씨를 광주 모 볼링장에서 찾아냈는데, 오씨는 현장에서 “가방 안에 넣어 둔 휴대전화의 ‘SOS’ 요청 버튼이 다른 물건에 눌려 오작동된 것 같다”고 답변.

○…담당 경찰은 “최근 납치 사건 등이 잇따라 긴장하고 수사했는데, 오인 신고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웃음.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